

신속하게 내려, 안전을 확인한 후 대피한다. 만일 간헐하게 되었을지라도 침착하게 인터폰으로 관리실에 구조를 요청하고 구조가 될 때까지 기다린다.

□ 지하철을 타고 있을 때

넘어지지 않도록 고정되어 있는 것을 꼭 잡는다. 지하철안은 비교적 안전하므로 문을 열고 뛰어 내리지 않도록 한다. 문을 열고 뛰어 내릴 경우 다른 차량에 치거나, 고압선에 감전될 우려가 있다. 갑자기 강한 충격이 올 수 있으므로 손잡이 등 차체에 고정되어 있는 것을 꼭 잡고 넘어 지지 않도록 하며 차내 안내방송에 따라서 행동한다. 지하철역에서는 일시 정

전이 되어도 비상등이 켜지게 되므로 안내방송에 따르도록 한다. 놀라서 출구로 몰려가는 행위는 위험하고 혼란을 일으키게 된다.

□ 자동차를 운전하고 있을 때

지진이 일어나면 자동차의 타이어가 펑크 난 듯한 상태가 되어 운전이 불가능하게 된다. 따라서 자동차는 차간 간격을 충분히 확보한 후 도로의 오른쪽에 세우고 사태파악을 한다. 그 상태로 30분정도 상황을 살핀 후 대피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창문을 닫고 자동차 열쇠는 꽂은 채로, 차문은 잠그지 말고 인근지역의 사람들과 행동을 같이 한다.

릴레이 인터뷰 23

국민대학교 최규석



금번 릴레이 인터뷰는 북한산 국립공원 자락에 위치한 국민대학교에서 방사선안전관리업무를 맡고 있는 최규석(37세)씨와 함께 자리를 마련하였다.

그는 대구보건대학 방사선과를 입학

하며 처음 방사선을 접하게 되었으며 이후 편입하여 대학교에 재학중이던 1996년 RI일반면허를 시작으로 2000년에는 감독자면허를 2005년에는 기술사면허까지 취득하였다. 덧붙여 비파괴검사기술과 관련된 자격증도 RT, MT, UT 등 각종 자격증을 겸비할 정도로 학업에 대한 열정이 많은 사람이다.

1998년 국민대학교에 입사한 이후 현재까지 자연과학대학 교학팀에 근무하며 방사선안전관리업무를

병행하고 있는 그는 학교에 대한 자부심과 방사선안전관리자로서의 긍지를 가지고 업무에 임하고 있다고 한다. 다음은 최규석씨와의 일문일답이다.

국민대학교는 여타 대학과 달리 개봉선원이 아닌 밀봉선원을 주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로 사용하시는 핵종이나 안전관리에 대한 방법에 대하여 한마디 해주신다면?

본교에서 사용하는 방사선의 양은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주로 사용하는 핵종은 Co-57 핵종을 사용하고 있으며 반감기가 270일로 다른 밀봉선원과 비교하면 비교적 짧은 편이어서 약 2년을 주기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Co-57은 에너지가 높지 않아 종사자들이 안전수칙만 준수할 경우 관리에 큰 어려움은 없으나 학교에서의 사고 발생은 타 사업장의 사고보다 과장이 크므로 종사자(학생)들에 대한 안전교육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국민대학교에서는 뫼스바우어를 사용하는 학교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약 6개 정도의 기관만이 사용할 정도로 생소한데 뫼스바우어란 어떤 방법인지 또한 사용분야와 연구업적에 대해 한마디 해주시기 바랍니다.

뫼스바우어란 1961년 노벨상을 수상한 독일의 물리학자인 뫼스바우어가 최초 고안한 실험의 결과인 뫼스바우어 효과를 이용하는 실험으로서 감마선 동위원소를 이용하여 핵공명 현상을 관측하는 원자핵의 나노(NT) 미세구조 연구에 필수적인 연구 수단입니다.

국민대학교에서는 나노전자 물리학과와 김철성교수님이 뫼스바우어 실험을 주도하고 계시며 2007년 3월을 기준으로 지난 5년간 국제학술지에 133편, 국내 학술지에 37편을 게재할 정도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특히 김교수님은 2002년 40편의 연구 논문을 국제학술지에 게재하여 당시 M?ssbauer Century club에 국내 유일의 학자로 등록이 되었을 뿐 아니라 이들 센트리 클럽 멤버 중 세계 1위의 연구 성과를 남기는 큰 업적을 이룩하였습니다. 지금 우리대학 뫼스바우어 실험실은 현재 BK21에 있어 핵심분야(기능성 초미세자성 연구)로 선정되어 많은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방사선안전관리업무를 하시면서 기억에 남는 일과 협회에 바라시는 점이 있다면 한마디 해 주십시오.

박사과정 중에 있던 여성작업종사자가 임신 후 유산을 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때 유산의 이유가 특별히 없었던 터라 혹시 방사선 실험 때문이 아니냐는 의문을 가지고 찾아와서 상담을 해준 기억이 납니다. 당시 연간 피폭량과 선량한도 등을 통하여 그 유산은 방사선 때문이 아니라는 설명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런 경우처럼 주변 일반인의 방사선에 대한 무지로 인하여 오해를 받는 점이 안전관리업무를 맡는 사람으로서 참 가슴이 아픕니다.

협회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현재 1년에 약 20명 정도의 감독자면허 취득자가 배출되는데 얼마 되지 않는 이들 조차도 취업이 어려울 정도로 면허자의 수요가 적고 근무 여건 역시 예전보다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협회에서는 면허자의 권익증진과 방사선의 이용증진을 위해 노력을 더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협회의 힘만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 회원(면허자)과 협회 그리고 정부가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방사선안전관리를 위해서는 관련정보수집이나 최신기술 습득 등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여타 기관 또는 모임을 통해 상호 협력하는 곳이 있는지요?

서울지역의 안전관리자들과 자주 자리를 마련해서 의견과 정보 등을 교류 하고 있으며 대학방사선안전관리협의회에도 가입하여 협의회 회원들과의 정보교류와 참여로 도움을 얻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특정한 모임은 아니지만 어려운 시절 같이 공부하여 감독면허를 취득한 이들과 하나로회라는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친목도모와 정보교류 위주로 1년에 한번정도 만나며 이 모임을 통해서도 최신 기술을 소개받는 등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는 테니스와 등산을 좋아하는 만능 스포츠맨으로 틈틈이 운동과 취미생활도 즐기며 일과 취미의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유능함을 보여준다. 국민대학교 내에서 방사성동위원소 사용량은 많지 않지만 교내 1위의 연구업적을 자랑하는 방사선분야에 대한 안전관리를 맡고 있다는 자부심이 충만한 그에게서 열정적으로 임하는 우리 젊은 안전관리자들의 밝은 미래를 볼 수 있어 기쁜 마음으로 인터뷰를 마칠 수 있었다.

국민대학교 최규석 방사선안전관리자는 다음번 인터뷰 주자로 케어캠프(주)의 김쌍태씨를 추천하였습니다.